

# 대중 영화 번역 자막의 젠더 차별 언어 사례 연구

김재민(이화여자대학교)

## 1. 서론

본고는 연구자가 15년간 영상 번역 실무자로 일하며 느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중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재미를 살리기 위해, 혹은 말맛을 살리기 위해 은어나 속어, 유행어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 문제는 유행어나 비속어 중 차별이 내포된 표현이 꽤 많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무심코 사용하거나, 마땅한 대체어를 떠올리지 못해 마감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영화 속 인물이 차별적 발언을 한다면 이를 살려야 하지만, 번역 과정에서 젠더 차별이나 비하의 뉘앙스가 추가되거나 강화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일례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언브레이커블 키미슈미트>(2016)의 한글 자막에서 ‘김여사’가, <러브>(2016~2018)에서는 ‘된장녀’가 사용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사례 모두 원문과 다르게 한글 자막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쓰였다.)

젠더<sup>2)</sup> 차별 언어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의 주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

1) ‘You drive just like your mother!’가 ‘김여사 같이 이게 뭐야!’로 번역됐다. 사치스러운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영어 신조어 ‘Baller’가 ‘된장녀’로 번역됐다(김하은, 2021). ‘김여사’는 운전이 미숙한 여성을, ‘된장녀’는 사치스러운 여성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이다. 해당 자막은 각각 ‘너네 엄마’, ‘사치녀’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했다(2024년 3월 4일 기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미투 운동, 2020년 트랜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 사건 등을 겪으며 젠더를 둘러싼 담론이 활발해졌다.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존의 젠더 차별적 언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방송 및 일상에서 젠더 평등한 언어 사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sup>3)</sup>

젠더 차별 언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번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젠더 평등한 언어를 사용해 재번역한 고전 문학 시리즈인 ‘걸 클래식 컬렉션’이 대표적인 사례다. 출판사 열린책들은 2016년부터 판 갈이를 할 때마다 ‘치녀작’, ‘여류 작가’, ‘계집애’ 등의 멸칭을 수정했고, 남편과 아내의 불균형한 존칭을 수정한 번역 개정판을 내기도 했다(최윤아, 2021).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국내 다수 영화제의 자막을 담당하는 업체인 ‘스튜디오 210’에서는 자막에서 ‘낙태’와 ‘미망인’의 사용을 금지한다.<sup>4)</sup>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언어에 대한 사회적 허용이 변화하고 번역 규범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영화 자막에서 ‘김여사’, ‘된장녀’, ‘낙태’, ‘미망인’ 등의 표현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에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각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과 주문형 비디오(VOD), DVD를 통해 언제든 다시 볼 수도 있다. 특히 인기가 많거나 화제가 된 작품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영화 자막에서 불필요하게 젠더 차별 언어가 사용되어 이를 통해 젠더 선입견이 시청자에게 전달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연구되어야 하고 개선

- 
- 2) 젠더는 성별과 달리 생물학적 특징을 기준으로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사회, 문화, 정치적 요인에 따라 끝없이 변화하고 수행된다. 본고에서는 ‘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무수히 다양하고 고유한 정체성과 지향성이 존재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 3)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6)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제30조)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2023)은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0)은 시민 참여를 통해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총 3종을 공개했다.
  - 4)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의미의 ‘낙태’는 여성의 결정권을 강조하는 표현(임신 중단, 중절 수술)으로 대체한다.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자’라는 뜻의 ‘미망인’은 맥락에 따라 수정한다.

이 시급한 문제다. 실제 번역 사례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젠더 번역 연구는 문학 작품에 치중되어 왔다. 영상 번역에서 젠더를 살펴본 연구가 등장한 것은 불과 2000년대 초반이다(Baumgarten, 2005; De Marco, 2006). 이후 영상 번역에서 젠더 번역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을 취했다(von Flotow & Josephy-Hernández, 2019). 첫 번째는 진취적인 젊은 여성을 주연으로 하는 영어권 영화 및 TV 시리즈의 여성주의 요소가 번역물에서 제대로 드러났는지 살펴보는 연구다(Chiaro, 2007; De Marco 2006, 2012; Feral, 2011a). 두 번째는 영상 번역물의 자막과 더빙 버전을 비교한 연구이며(Feral, 2011b) 세 번째는 퀴어 언어 번역 연구다(Ranzato, 2012).

국내의 경우, 조성원(2004)이 셰익스피어 원작 영화 3종의 자막을 대상으로 여성 재현의 변이를 분석해 최초로 영상 번역과 젠더를 접목했다. 이후 이상빈(2016)이 처음으로 젠더 번역 이론을 적용해 영화 <Sex and the City 2>의 여성주의 요소가 우리말 번역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디즈니 영화 3종(김세현, 2017)과 퀴어 영화 2종(김세미, 2023)을 대상으로 젠더 재현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나열한 연구들 모두 번역에 의한 젠더 재현의 변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상 번역에서 젠더 차별 언어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단 한 편뿐이다. 김세현(2018)은 영화 6편의 자막에서 나타난 젠더 편향적 표현 8건에 대하여 학부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막 번역에서 젠더와 관련해 최초로 수용자 인식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분석 영화 선정 기준과 사례 수집 절차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고, 수집된 사례가 비교적 적다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다. 본 연구는 관객수를 기준으로 영화 20편을 선정한 뒤 한글 자막 데이터를 구축해 사례를 수집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젠더 차별 언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진 데 반해 젠더 차별 언어를 다룬 번역 연구는 단 3건이다(김세현, 2018; 김옥동, 2012; 지윤주, 2021a). 시의성이 높지만 외면 받고 있는

연구 분야다. 보다 젠더 평등한 사회 구축을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대중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번역 자막에 나타난 젠더 차별 언어 사례를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대중 영화의 영한 번역 자막에서 젠더 차별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가?
- 2) 사용되고 있다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이를 위해 우리말로 번역된 외화 20편을 관객수 기준으로 선별하고, 한글 자막 코퍼스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관객수를 기준으로 영화를 선정한 이유는 관객수가 높을수록 대중에게 더 많이 노출된 자막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번역 자막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이되는 젠더 선입견을 문제시하고 있으므로 노출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젠더 차별 언어 사례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례의 원문과 해당 장면의 상황 맥락을 확인했다. 원문에 젠더 차별 뉘앙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어떻게 추가되었는지 유형별로 분석하고, 가능한 경우 대안 번역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젠더 번역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젠더 차별 언어 분석 틀, 분석 대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절차를 소개하고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논의한다. 5장에서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논한다.

## 2. 젠더 번역 연구

번역 행위와 번역 생산물은 사회적 맥락 안에 있고, 모든 단계에서 번역은 사회 체계에 속한 개인에 의해 수행된다. 사회화된 개인이 수행하는 번역 활동은 사회의 가치관, 고정관념, 지배 이데올로기와 깊숙이 연계되어 있다. 번역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에 저항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70년대 캐나다의 여성주의<sup>5)</sup> 작가들은 가부장제에 저항하며 가부장적

언어를 대상으로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들의 글이 국경을 넘어 다른 언어와 만나면서 캐나다 여성주의 번역이 탄생한다. Barbara Godard, Susanne de Lotbinière-Harwood, Luise von Flotow 등의 캐나다 여성주의 번역가들은 보충, 서문과 주석, 납치 전략을 사용하여(von Flotow, 1991, p. 74)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번역을 수행했다.<sup>6)</sup> 번역서의 서문을 통해 정체성과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이를 번역에 투영시키고 개입하며 번역가로서 자신을 가시화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기존의 번역 담론에서 꾸준히 복종을 강요받아 온 번역의 위치를 재조정했다.

캐나다 여성주의 번역은 1980년대에 문화적 전환을 거치며 논의의 폭을 넓힌 번역학과 교차하게 된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 젠더 번역의 기념비적 저서 두 권(Simon, 1996; von Flotow, 1997)이 출간되었다. 두 책 모두 여

5) 기존의 관련 국내 논문에서는 대체로 ‘페미니스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페미니즘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여성 우월주의’의 뜻으로 왜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윤주(2021b)는 페미니즘 관련 웹 기사문의 기계번역 결과에서 ‘여성 우월주의’가 ‘feminism’으로 번역되는 경향을 발견했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Wavve(웨이브)에서 2024년 1월 26일에 공개한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에서는 페미니즘의 대립 이념으로 ‘이퀄리즘(Equalism)’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페미니즘의 대립 이념은 성차별주의(sexism)다. 이퀄리즘은 2016년 8월 나무위키에 ‘페미니즘의 역차별에 대한 모색으로’ 생겨난 사상이라며 게시됐으나 곧 날조 문서임이 밝혀졌다(허진무, 2017). 페미니즘을 여성 우월주의로 왜곡하여 생겨난 단어가 대중 방송에 사용됐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오염되었음을 방증한다. 학술 논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페미니즘’은 오독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체할 우리말로는 여성주의, 여권주의, 남녀동권주의가 있는데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여성주의를 택했다.

6) von Flotow(2019)는 거시전략과 미시전략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거시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번역일지, 서문, 설명, ② 번역하지 않기, 전략적 텍스트 선택, ③ 여성주의 관점의 출간, 평가, 비평, ④ 재번역, ⑤ 무료 번역(*gratis translation*)이다. *Gratis translation*은 “사회문화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무료로, 혹은 아주 적은 돈을 받고 하는 번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 234). 미시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문체/문법 수정, ② 창조적/신조어 번역이다.

성 번역가들에게 주목하며 여성주의 관점에서 번역에서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었다. 2005년에는 Santaemilia의 『Gender, Sex and Translation: The Manipulation of Identities』가 출간되었다. 2002년 스페인에서 열린 세미나에 발표된 12편의 논문을 엮은 편저다. 스페인, 독일, 핀란드, 스위스, 일본 등 다양한 언어권의 학자들이 영상, 문학, 성서, 통역, 교육 등 폭넓은 주제를 통해 젠더와 번역을 고찰했다.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젠더 번역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Zhu 등 (2023)이 문헌 분석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Web of Science와 Scopus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지수가 높은 학술지에 실린 젠더 번역 논문 50편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관련 논문은 5편에 그친다. 2011년에 7편이 게재되었고 2016년까지 점차 줄어들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 10편, 2022년에 10편이 게재됐다. 소설을 분석한 연구는 16편, 영상물 10편, 아동 문학 4편, 종교 서적 3편, 시 2편 등으로 문학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주제로 분류하면 가부장/여성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텍스트 변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번역을 통한 젠더 재현의 변이다.

젠더 재현의 변이는 주로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영상 번역을 다룬 최초의 단행본이 2012년 출간되었다. De Marco(2012)는 영화의 더빙과 자막 번역을 통한 젠더 고정관념의 문화간 전이에 주목한다. 북미와 영국 영화 10편의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 번역물을 대상으로 시각 이미지, 결텍스트, 인물의 역할, 담화를 통해 젠더 재현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원작과 번역본에서 공통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을 지칭할 때 비하 표현이 더 많이 쓰였고 전통적인 젠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인물을 향한 적대감이 관용구와 욕설 등을 통해 드러났다. De Marco는 이 연구의 목적이 불균형을 좌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다(p. 223). 일상 언어를 통해 끝없이 재양산되고, 번역을 통해 다른 문화로 전이되는 젠더 고정관념과 편견을 비판하고 전복시키려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7) 이데올로기에 의한 텍스트 변이는 젠더 번역 연구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 (Santaemilia, 2013, p. 7)로 원문과 번역문 대조를 통해 꾸준히 진행되었다. (Hartman, 1999; Muñiz, 2018; Orozco, 2013; Tolliver, 2002)

이탈리아의 아동 문학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젠더 고정관념이 추가되고 강화된 사례도 있다(Williams, 2022). 원작에서 남성인 고양이가 번역본에서 여성으로 바뀌면서 부정직하고 교활하고 수동적인 고양이를 묘사하는 언어가 여성 지시어와 함께 사용되었다. 반면, 진취적인 성격으로 묘사되는 여우는 원래 여성이었으나 번역본에서 남성으로 바뀌었다. 인물의 성별을 바꾸는 것은 원문을 전유하는 납치(hijacking)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sup>8)</sup> 이러한 적극적인 다시 쓰기를 통해 영어 번역본은 원작과 달리 진취적인 남성과 수동적 여성에 대한 젠더 편견을 강화한다. 1892년에 처음 번역된 이후 2011년까지 9종의 개정판이 나왔으나 뒤바뀐 젠더는 수정되지 않았다. 시대 변화에 따라 번역도 다시쓰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문화간 중재자로서 수용 문화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개입해야 하는 번역가의 역할이 젠더 번역 연구에서도 주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서양의 문화권에서 동양 문화권으로 번역될 때는 어떨까.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교에 뿌리를 둔 중국 사회에서 어떤 양상으로 젠더가 번역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Tang(2022)은 영어 소설의 중국어 번역본 2종에서 평가 언어(evaluative language)를 통해 젠더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을 확인했다. 유교 사회의 젠더 가치관에 반하는 인물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 즉 언어 처벌(linguistic punishment)이 추가 및 강화되었으며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에 순응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즉 언어 보상(linguistic rewards)이 나타났다. 젠더 고정관념의 영속 및 강화를 위해 번역가의 개입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연구다.

최근 젠더 번역 연구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초국가적 연대를 그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여러 편지를 통해 북미와 서유럽뿐 아니라 비영어권인 남미, 동유럽, 북유럽, 아시아의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Castro & Ergun, 2017; Federici & Santaemilia, 2022; von Flotow & Kamal, 2020). 여성의 저항 및 가 사회에 중점을 두었던 1차 페러다임을 지나, 젠더를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정치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수행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2차 페러다임(von Flotow, 2007, pp. 93-94)에 접어들면서 개개인의 당

8) 연극 <비평가>처럼 남성 인물을 여성 배우가 연기하는 젠더 프리 공연에서 볼 수 있다(박소영과 임승태, 2020).

사자성에 집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여성주의 번역 연구가 헤게 모니 언어에 치중되어 있다는 내부 비판(Reimóndez, 2017)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Reimóndez는 Chamberlain(1988) 이후 젠더 번역 담론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주제인 원전/남성, 번역본/여성 비유가 모든 언어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며 문학 번역이 남성적 활동으로 인식되는 갈리시아를 그 예로 든다(p. 48).

젠더 번역 연구의 편향성은 언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젠더 번역 분야 내의 대다수 연구가 여성의 번역, 여성으로서의 번역, 혹은 번역되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앞서 거론한 2차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젠더 다양성을 고려하게 되면서 퀴어 번역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통번역 분야 저명 학술지인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는 2021년에 ‘LGBT+/퀴어 행동주의’ 특별호를 발간했고, 퀴어 번역 연구 서적도 하나둘 출간되고 있다(Baer & Kaindl, 2018; Epstein & Gillbert, 2017; Rose, 2021).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젠더와 번역을 다룬 연구는 2003년부터 등장했으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번역과 젠더에 관한 개념적 고찰이다. 김신좌(2003)와 박선주(2012)는 번역과 젠더의 상호 관계를 다루었고 이상빈(2012)는 문화번역과 젠더 번역 이론을 비교 고찰했다. 둘째, 문화번역 관점에서 젠더를 분석한 연구다. 여기서 젠더 번역은 “젠더라는 인식소를 번역에 집요하게 개입시키는” 문화연구의 방법론이다(태혜숙, 2013, p. 83). 이러한 연구는 쓰이고 읽히는 여성에 주목하며 꾸준히 이루어졌다.<sup>9)</sup> 셋째, 번역 사례 및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다. 주제별로 분류해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9) 1920~30년대 여성잡지 「신여성」(김윤선, 2012), 1950~70년대 여성잡지 「여원」(장미영, 2012), 1930년대 조선 영화 <어화>(박소연, 2015), 『채식주의자』 영역본(우경조와 임향옥, 2021) 등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국내 젠더 번역 사례 및 전략 연구

주제	저자
번역을 통한 젠더 재현의 변이	김세현(2017), 이상빈(2016), 이상빈과 이선우(2018), 조성원 (2004)
번역가의 성차에 따른 표현 양상	권오숙(2012), 유미향 등(2012)
젠더 차별 언어	김세현(2018), 김옥동(2012), 지윤주(2021a)
여성주의 번역 전략	김가희(2015), 마승혜(2015, 2020), 마승혜와 김순영(2022), 박소영과 임승태(2020), 정선혜와 박윤희(2017, 2020), 이상빈과 선영화(2017), 홍승연 (2019)
퀴어 번역	김세미(2023), 박소영(2018), 성승은(2018), 신나안(2018), 지윤주와 이상빈(2020)

여성주의 번역 전략을 다룬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von Flotow(1991)가 제시한 여성주의 번역 전략을 분석 틀로 하여 한글 번역본에서 얼마나 실천되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공통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관, 번역가의 낮은 입지를 잠정적 요인으로 꼽는다. 예외로 박소영과 임승태(2020)와 홍승연(2019)은 각각 연극 <비평가>의 젠더 프리 공연 텍스트와 소설 『래디컬 페미니즘』을 대상으로 여성주의 관점에서 다시 쓰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입 사례를 보여준다. 다만 분석 텍스트가 문학 작품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다. 그 밖의 주제에서는 영화(김세미, 2023; 김세현, 2017, 2018; 이상빈, 2016), 연극(박소영, 2018), 기계번역(지윤주, 2021a) 등 분석 대상이 비교적 다양하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퀴어 번역 연구도 2018년 이후로 총 5건이 이루어져 젠더 번역 연구의 2차 패러다임이 국내 연구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방송 및 일상에서 사용되는 젠더 차별 언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진 데 반해, 젠더 차별 언어를 다룬 번역 연구가 단 3건뿐인 것이 놀랍다. 김옥동(2012)는 동서양의 속담 및 여성 지칭어 비교를 통해 우리말이 남존여비 사상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밝혔고, 지윤주(2021a)는 기계번역에서도 한국 사회에 내재하는 젠더 고정관념

의 일부가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p. 288). 또 김세현(2018)의 연구에서는 120명의 대학생 중 대부분이 젠더 편향적 자막 번역을 경험했고 불쾌감을 느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번역에서의 젠더 차별 언어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 3. 연구 방법

#### 3.1 젠더 차별 언어 분석의 틀

이 연구는 우리말 번역 자막에서 나타난 젠더 차별 언어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 틀은 차별 언어와 관련한 국책 연구 2가지를 참고하였다.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실시된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보고서인 조태린 등(2006)과 안상수 등(2007)은 방송, 신문,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언어 표현을 수집해 유형에 따라 분류했다. 두 연구에서 정의한 젠더 차별 표현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선행 연구의 젠더 차별 언어 유형

조태린 등(2006)	안상수 등(2007)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명칭 (미혼모, 미망인)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형제애, 스포츠맨, 자매결연, 남녀, 부모)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냄 (여의사, 여대생, 여기자)	불필요한 성별 강조 (여의사, 여성 총리, 남자 간호사)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 (처녀림, 처녀작)	선정적 표현(흑진주, 꽃미남, S라인)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 (시집가다, 바깥사돈)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숫처녀, 미망인, 백치미)
여성을 비하(계집애, 마누라)	특정 성 비하 (여편네, 솔뚜껑, 제비족)

본 연구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과 퀴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젠더를 향한 차별을 문제시하고 있으므로 여성 차별 표현에 치중한 조태린 등(2006) 보다는 안상수 등(2007)의 유형 분류에 따랐다. 두 개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불필요한 성별 강조, 고정관념 강조, 특정 성 비하를 차용했다. 여기에 ‘성적 대상화’ 항목을 추가해 선정적 표현이나 성적/신체적 특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포함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젠더 차별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3  
젠더 차별 언어 4가지 유형

유형	설명 및 예시
불필요한 젠더 강조	접두사 ‘여’, ‘남’ 및 젠더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경우. 예) 여배우, 여교수, 여자대학교
젠더 고정관념 및 편견 강화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 혹은 남성의 소유물이나 사냥감으로 취급하는 등 차별적 고정관념이 내포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젠더 비하	특정 젠더를 낮추어 일컫는 어휘 사용. 예) 년, 계집, 창녀, 호모
성적 대상화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예) 글래머, 섹시 등

### 3.2 데이터 수집

분석 대상은 국내 개봉작으로 한정했다. 개봉작을 선택한 이유는 관객수를 지표로 삼아 데이터를 선별하기 위함이다. 관객수가 많을수록 해당 자막이 더 많은 대중에게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번역 자막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이되는 젠더 선입견을 문제시하고 있으므로 노출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분석 대상은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KOBIS)<sup>10)</sup>에서 제공하는 역대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한 외국 영화 20편이다. 상위권 내에 동일한 시리

10) 전국영화관의 입장권 발권 정보를 집계, 처리하는 시스템. 2004년 이후 수집된 발권 데이터를 반영한다(2024년 1월 9일 기준).

즈의 영화가 여러 편 포함된 경우, 관객 수가 가장 높은 한 편만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sup>11)</sup> 등장인물, 관계, 담론의 주제나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각 영화의 장르는 해외 영화 정보 사이트인 IMDb를 참고하였다.

표 4  
분석 영화

	영화명	장르	관객수 (단위: 천명)
1	어벤져스: 엔드게임(2019)	SF 액션	13,977
2	겨울왕국2(2019)	애니메이션	13,768
3	아바타(2009)	판타지 모험	13,338
4	알라딘(2019)	코미디 모험	12,797
5	인터스텔라(2014)	SF 드라마	10,342
6	보헤미안 랩소디(2018)	음악 드라마	9,948
7	아이언맨 3(2013)	SF 액션	9,001
8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2016)	SF 액션	8,678
9	탑건: 매버릭(2022)	액션 드라마	8,226
10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2019)	모험 액션	8,023
11	트랜스포머 3(2011)	SF 액션	7,785
12	미션임파서블:고스트프로토콜(2011)	모험 액션	7,508
13	엘리멘탈(2023)	애니메이션	7,238
14	다크 나이트 라이즈(2012)	범죄 액션	6,428
15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2015)	모험 액션	6,129
16	인셉션(2010)	SF 액션	6,014
17	레미제라블(2012)	뮤지컬	5,942
18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2022)	판타지 액션	5,884
19	캡틴 마블(2019)	SF 액션	5,802
20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2018)	SF 액션	5,661

분석 데이터는 영화 VOD 플랫폼인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구매한 인터넷

11) 따라서 <표 4>의 목록 번호는 관객 수 순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VOD의 한글 자막이다. 번역 자막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보면 DVD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고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DVD가 아닌 VOD 자막을 분석 자료로 선택했다. 첫째, DVD 및 블루레이 이용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해당 영화의 자막 표본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영화진흥위원회(2023)에 따르면 2022년 극장 외 시장 매출액에서 DVD와 블루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그친다. 반면, 인터넷 VOD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2022년 극장 외 시장 매출의 37.4%를 차지했다.

둘째, VOD 자막은 극장 상영 자막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최소한의 수정만을 거친다. 국내 투자배급사(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워너 브러더스코리아,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유니버설픽처스 인터내셔널코리아 등)는 자사 콘텐츠의 온라인 배급을 직접 수행하므로 극장판 자막을 VOD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한다(영화진흥위원회, 2016, p. 5). 분석 대상 영화 모두 대형 배급사의 작품임을 감안하면 온라인 VOD 자막이 극장용 자막과 동일할 확률이 높다.

단, 네이버 시리즈온의 VOD는 DRM<sup>12)</sup>이 적용되어 있어 자막 파일을 추출할 수 없으므로 자막 업로드 사이트 Subscene에서 영문과 한글 자막을 다운로드한 뒤 인터넷 VOD와 자막이 동일한지 확인하였다.

SRT 형식의 자막 파일 20종을 자막 프로그램 Subtitle Edit를 사용해 텍스트 파일로 변환했다. 보다 용이한 검색을 위하여 한글 자막 텍스트 파일을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인 AntConc에 탑재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젠더 차별 언어는 맥락 내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AntConc의 Key Word in Context(KWIC) 기능을 활용했다. 키워드는 젠더 관련 지칭어와 접두사, 접미사 11개를 사용했다. 그리고 연구자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젠더 차별이나 비하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표현 중에서 자막 번역에서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단어 10개를 추가하였다.

12)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기술, 사용료 부과를 통한 유통 및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기업 내 문서보안과 저작권 관리 기술이 포함되는 방대한 개념이다(서동민, 2011).

- 1) 젠더 관련 지칭어: 남성, 남자, 여성, 여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 2) 접두사와 접미사: 남-, 여-, -남, -녀
- 3)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 김여사, 낙태, 미망인
- 4) 젠더 비하 표현: 년, 계집, 걸레, 호모, 창녀
- 5) 성적/신체적 특성을 강조하는 표현: 글래머, 섹시

‘놈’의 경우 영화에서 악인을 지칭할 때 특정 젠더 비하의 의도보다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제외하였다. 총 21개의 단어를 검색<sup>13)</sup>한 뒤 해당 문장을 확인하였다.

그림 1  
검색어 ‘여자’의 KWC 결과

File	Line	Left Context	HR	Right Context
1	1	한나 요한 빌 님이본 표현이 그 여자 누구야? 음? 골주어	여자	그 골주어 '여자'는 여학생처럼 '여자'의 인사와 결합 골주어고
2	2	이성애 교착지향 어린 교착지향이라는 불협화음이 부어와 보니까 흥남이 왜 있고-	여자애들도	다 호되더라고. <그 불협화음 있어 여자애 다 호되다 아무튼
3	3	여자가 어떤 게 더 있어? 험두만 단어를 씌웁니다 그	여자	말을 할나? 어떤 보지 하면 못 할말도 어떻게 할
4	4	여기만이 주장을 거부하게 할 수 있나? 오서만, 자빠도 난 자	여자	말을 할수 있지만 사실상 저 여자에게 달랑한 건 같잖아
5	5	남자는 여자만고 아니고 무관한 남자는 여물이 다사 불 거만 할모래	여자를	보았지만 이름은 다사 오지 않았지 내해 존경연애에 10년 만만에 10
6	6	남자는 여자만고 아니고 무관한 남자는 여물이 다사 불 거만 할모래	여자를	보았지만 이름은 다사 오지 않았지 내해 존경연애에 10년 만만에 10
7	7	좋은 죽음을 앗음 노인이 사형에 처당한 이름을 따올라 경제 남자는	여자만지	어리고 무관한 남자는 여물이 다사 불 거만 할모래 여자를
8	8	노이 죽음을 앗음 노인이 사형에 처당한 이름을 따올라 경제 남자는	어지고	어리고 무관한 남자는 여물이 다사 불 거만 할모래 여자를
9	9	이런 내가 거추한 거야 내가 그거 해라고 하고 그	여자애까지	거고 남다고 현자 - 도둑야 - MM 암사사 라, 이게 뭐야?
10	10	강한건 거야 그대	여자를	거만하면서 '여자는'의 강하면 강고는 끝 끝까지 여자애가 태어난
11	11	있었나 - 잘 지내 마라 온 거였어 스카이라이프는 거	여자만	같이 살지 마라 온 거였어 스카이라이프는 거
12	12	최종 아니었나? 대거본래의 일정이 유명 브로그로 말하게 하고! - 쉽게 죽을	여자	말하는 것인데... 말하지마. 좋은 말은 아니지 - 그런 말만 굳이 좋은
13	13	이것이 사람을 죽고 싶어하고 근대 저급한? 남 부러워할 정도로만 같	여자	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여자 부러워할 정도로만 같
14	14	세상을 구해서 할 좋은 표현이요 할로는 애차로 불릴지 모르지만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고백하라고 했는데 다 말하면은 할로는 좋은 말은 아니지
15	15	인교부소? 발신기 작동 상태예요. 미소 저 바디로 개개 지분을 박탈당	여자에	관해 하는 거 있소? 세이저 세이저 세이저 세이저 세이저 세이저
16	16	내가 보자라고 이런 말이 유출된들은 미국인 종아 - 정말? 유출된의 한은	여자야?	그럼, 남자는? MM을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하고 사서해
17	17	말을 할 거야 호모. 자살 적한 걸이 사형하는 사람은 있어만	여자만?	그럼... 는 말지 거야? 내야? 내야? 내야? 내야? 내야? 내야?
18	18	배지안 국어? - 마르코니 - 메탈이 디지탈인 말야요. 애간 내 흥분 레이드일 -	여자만?	가들고 - 말지 말지말라 사형 해고 하고 다 내야? 말

위의 예시에서 ‘여자’에 대한 검색 결과는 100건이다. 두 번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추렸다. 첫째, 검색된 문장의 문맥을 확인하여 젠더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이나 선입견이 포함되지 않은 문장은 제외했다. 위 그림에서 1

13) 접두사 ‘여-’, 접미사 ‘-녀’/‘-남’ 등 단어에 포함된 어휘나, 뒤에 조사가 붙는 명사를 모두 포함하기 위하여 앞뒤에 별표(\*)를 붙여 검색하였다. 예) \*녀\*

번 항목의 ‘여자는 다 공주지’의 경우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해 사례에 포함했다. 10번 항목 ‘죄수들이 여자를 가만뒀겠어?’ 역시 고정관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원문과 해당 장면을 확인하여 원 대사에도 젠더 차별 및 비하의 뉘앙스가 있는 경우 제외하였다. 단, 원 대사에 비해 젠더 차별의 뉘앙스가 불필요하게 강화된 경우는 사례에 포함했다. 총 21개의 검색어에 대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사례를 수집하였다.

#### 4. 분석 결과 및 논의

외화 20편의 한글 자막으로 자체 제작한 코퍼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젠더 차별 언어 사례를 수집한 결과 총 10편의 영화 자막에서 24건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집된 사례는 ‘불필요한 젠더 강조’, ‘젠더 고정관념 및 편견 강화’, ‘특정 젠더 비하’로 나누어 정성적 분석을 실시했다. ‘성적 대상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설적 표현을 지양하는 자막 번역 규범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자막 번역은 시청자나 관객의 연령이 다양하며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온 성적인 표현은 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 4.1 불필요한 젠더 강조

원문에 젠더 구분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접두사나 단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젠더를 강조한 사례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1건, <아이언맨 3>에서 1건,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 1건, <미션임파서블: 고스트프로토콜>에서 1건,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 3건,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2건으로 총 6편의 영화 자막에서 9건이 수집되었다.

<에시 1>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중에서

원문: I've got better things to do with my Saturday nights. I could give you their names.

번역문: 이럴 바엔 여자나 만나러 가지. 깔린 게 여잔데

행위나 성별이 표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원문 대사를 ‘여자를 만나러 가다’, ‘깔린 게 여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한 사례다. ‘토요일 저녁 낭비했네, 재미 볼 상대 많은데’라고 번역한다면 원문에 더 가까우면서 특정 성별을 강조하지 않는 대안이 된다.

<예시 2> 영화 <아이언맨 3> 중에서

원문: Here's how it works, Meryl Streep.

번역문: 잘 들어, 여배우

해당 장면은 아이언맨이 극 중 ‘만다린’이라는 인물을 사칭하는 무명 배우에게 하는 말로, 형편없는 연기 실력을 비꼬아 조롱하기 위해 ‘메릴 스트립’이라고 칭한 것이다. 그러나 ‘여배우’로 번역되면서 불필요하게 젠더가 강조되었다. ‘잘 들어, 배우 양반’으로 수정할 수 있다.

<예시 3>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중에서

원문: In her defence, I'm a handful.

번역문: 날 이해해 줄 여자 별로 없어

극 중 토니 스타크가 아내 페퍼 포츠와 별거 중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아이언맨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아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대사다. 한글 자막에서는 주어로 ‘여자’가 쓰여 불필요하게 강조되었다. ‘나랑 사는 건 버거운 일이야’를 제안한다.

<예시 4> 영화 <미션임파서블: 고스트프로토콜> 중에서

원문: My God, you are a passionate creature.

번역문: 당신은 참 화끈한 여자군

극 중 미디어 거물이자 예술품 수집가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름다운 첩보 요원에게 하는 대사로,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어휘인 ‘존재(creature)’가 쓰였다. 대안으로 ‘당신 정말 화끈하군’을 제안한다.

<예시 5>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 중에서

원문: And can we get some girls in here?

번역문: 아가씨들도 좀 불러

원문: Careful what you wish for

번역문: 여자 밝히다 신세 망쳐

첫 번째 대사에서 ‘girls’가 ‘아가씨들’로 번역되어, 돈을 받고 손님을 접대하는 특정 직업군의 여성으로 의미가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사 발화자는 곧바로 캣우먼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 문장이 캣우먼의 대사다. 뭔가를 바라는 것도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의 관용문이다. 번역본에서는 불필요하게 성별이 강조되었고 여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으로 읽힐 수 있는 문장이 되었다. 대안으로 ‘여자들 좀 불러’, ‘그러다 큰코다치지’을 제안한다.

<예시 6>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 중에서

원문: There's more to you than that.

번역문: 그럴 여자 아닌 거 알아

‘you’가 ‘여자’로 번역되었다. ‘사람’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예시 7>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 중에서

원문: Innocence cannot flower underground. It has to be stamped out.

번역문: 그치만 죄수들이 여자를 가만놔놔어?

순수함은 땅속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드러난다는 의미의 문장으로 극 중 베인이 어린아이를 구해주는 모습과 함께 나오는 대사다. ‘innocence’는 아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한글 자막은 원문의 의미에서 벗어난 데다가, 아이의 엄마가 여자이기 때문에 죄수들에게 공격 당했다는 암시를 주고 있어 부적절하게 성별이 강조된 사례다. ‘순수함은 불순물을 제거해야 얻을 수 있지’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예시 8>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중에서

원문: but there's a much easier way to guarantee getting someone home.

Rohypnol.

번역문: 여자 꼬시기에 훨씬 쉬운 방법이 있어. 로힙놀이란 약이지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someone’이 ‘여자’로 번역되었다. 악당이 나타나 약물을 탄 샴페인을 따르자 주인공이 의식을 잃는 장면이다. 이후 그는 몸이 묶인 채 악당에게 취조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여자 꼬시기에’라는 번역은 상황 맥락에서 벗어난 데다가 약물을 술에 타는 범죄 행위를 포함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성과 연관 짓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서 번역해야 한다. ‘누군가를 집에 데려가려면 이게 딱이지’를 제안한다.

<예시 9>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중에서

원문: Posh girls love a bit of rough.

번역문: 고상한 여자들은 터프가이를 좋아해

‘a big of rough’를 그대로 해석하여 ‘거친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음에도 남성성을 명시하는 ‘터프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고상한 여자들은 거친 걸 좋아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 4.2 젠더 고정관념 및 편견 강화

젠더와 관련해 기존의 편향된 시선 혹은 고정관념을 재생산 및 강화하는 사례가 <알라딘>, <아이언맨 3>,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레미제라블>에서 각 1건이 수집되어 총 5편의 영화 자막에서 5건 발견되었다.

<예시 10> 영화 <알라딘> 중에서

원문: She's a princess.

번역문: 알라딘공주야

원문: Aren't they all? "Treat your woman like a queen," I always say.

번역문: 여자는 다 공주지. 여자는 여왕님처럼 모셔라, 내 신조야.

‘여자는 다 공주지’라는 문장은 공주-왕자 서사에서 출발한 ‘수동적 여성’ 고정관념을 연상시킬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공주와 연관 지어 묘사할 때는 대체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며, ‘공주병’, ‘양공주’ 등의 파생어를 보더라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문장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차별의 뉘앙스는 없다. 따라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고 ‘모두 그렇지 않아?’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예시 11> 영화 <아이언맨 3> 중에서

원문: until the friendly Cheyenne **braves** had all gone hunting.

번역문: 샤이엔 부족 **남자들이** 사냥을 떠나자

‘the braves’는 용감한 자, 부족의 전사를 의미한다. 사냥을 하는 사람은 남성이라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번역이다. 성별이 명시되지 않은 단어인 ‘전사’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12>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중에서

원문: If you want to **hook up with** some random European chick, that's on you.

번역문: 유럽 **여자 헌팅**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

‘hook up with’라는 원문 표현에는 성적인 함의는 있지만 젠더 차별적 뉘앙스는 없다. 그러나 ‘여자 헌팅’이라는 단어는 여성을 사냥감으로 취급하는 편견이 내포된 표현이다. ‘hook up’의 번역어 대안으로 ‘즐기다’, ‘재미보다’, ‘놀다’가 있다. ‘유럽 여자랑 놀든 말든 상관없어’로 수정할 수 있다.

<예시 13>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중에서

원문: **At least the girl's got balls.**

번역문: **여자만도 못하군**

주인공 에그시가 킹스맨 요원 선발 시험에서 실패하는 장면이다. 함께 간 후보생 록시는 통과한다. 록시를 지칭하는 ‘the girl’이 ‘여자’로 번역되면서 여성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이 남성에게 흠이 되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문장이다. ‘적어도 한 명은 쓸만하군’으로 번역할 수 있다.

<예시 14> 영화 <레미제라블> 중에서

원문: Don't it make a change to have a girl who can't refuse?

번역문: 돈으로 여잘 사면 꽤나 짜릿하시겠네

‘돈으로 여자를 산다’라는 표현은 성매매를 암시하고, 여성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번역이다. ‘여자에게 거절당하지 않으니 색다르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 4.3 특정 젠더 비하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트랜스포머 3>에서 1건,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 1건, <레미제라블>에서 8건으로 총 3편의 영화 자막에서 10건이 발견되었다. 어휘를 살펴보면 ‘계집’ 2건, ‘창녀’ 2건, ‘년’ 5건이 수집되었고, 맥락 상 여성을 비하하는 문장이 1건 수집되었다.

<예시 15> 영화 <트랜스포머 3> 중에서

원문: We came here to find her in the middle of all that?

번역문: 여자 하나 찾자고 여기 온 거야?

‘여자 하나 찾자고’라는 표현이 쓰임으로써 여자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 번역문이 되었다. ‘저 난리통에서 사람을 찾겠다고?’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예시 16>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 중에서

원문: Creep!

번역문: 도둑년!

‘creep’은 불쾌한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단어는 아니다. 비속어로 번역할 경우 머저리, 얼간이, 찌질이, 또라이로 번역 가능하다. ‘또

라이!’로 번역한다면 여성을 비하하는 뉘앙스가 사라진다.

<예시 17> 영화 <레미제라블> 중에서

원문: You've got some nerve, you little **slut**.

번역문: 어쭙, 이 걸레 년이 제법 비싸게 구네

난잡한 여성을 이르는 비하 표현인 ‘slut’은 한국어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비하 표현인 ‘걸레’로 번역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인 ‘년’이 추가되면서 여성 비하의 뉘앙스가 강해졌다. ‘년’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예시 18> 영화 <레미제라블> 중에서

원문: Right, **my girl**. On your way.

번역문: 못된 계집년 썩 나가

‘my girl’이 여성을 낮잡아 일컫는 말인 ‘계집’으로 번역되었다. 거기에 또 다른 여성 비하 표현인 ‘년’, 그리고 ‘못된’이라는 형용사가 추가되면서 원문에는 없는 비하의 뉘앙스가 추가된 사례다. 공장 관리자가 판단을 하고 하는 장면임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년 끝이야, 썩 나가’라고 번역할 수 있다.

<예시 19> 영화 <레미제라블> 중에서

원문: That **bourgeois two-a-penny thing**.

번역문: 그 애송이 부잣집 계집애요?

중산 계급을 뜻하는 ‘부르주아’가 ‘부잣집 계집애’로 번역된 사례다. 원문에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음에도 여성을 낮잡아 일컫는 말인 ‘계집’이 쓰였다. ‘two-a-penny thing’은 ‘흔한 것’을 의미하므로 ‘흔한 중산층’으로 번역할 수 있다.

<예시 20> 영화 <레미제라블> 중에서

원문: You play a virgin in the light. But **need no urging in the night**.

번역문: 낮엔 요조숙녀 밤엔 창녀였다니!

‘need no urging in the night’는 ‘밤에는 욕망을 느낄 필요도 없다’로 해석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상대의 방탕함을 암시하는 문장이다. 번역 자막에서는 ‘창녀’라는 직설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창녀’는 비하·모욕에 해당하는 여성 혐오 표현(이수연 등, 2019, p. 40)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단어다. ‘낮엔 내숭 떨고 밤엔 실컷 즐기고’로 옮기면 여성 비하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예시 21> 영화 <레미제라블> 중에서  
원문: When this prostitute attacked me.  
번역문: 이 창녀가 날 공격했소

‘prostitute’는 성노동자를 뜻하는 격식 표현으로 명시적인 비하의 뉘앙스가 없다. 따라서 한국어로도 비하의 뉘앙스가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매춘부’나 ‘창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창부’의 경우 현재 많이 쓰이지는 않으나 해당 작품의 배경이 19세기임을 고려하여 예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번역어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예시 22> 영화 <레미제라블> 중에서  
원문: Who is this hussy?  
번역문: 저 양아치 년은 누구야?

‘hussy’는 ‘음란한 여자’ 혹은 ‘방탕한 여자’를 뜻한다. 에포닌의 아버지가 골목을 서성이는 딸을 보고 매춘부로 오해한 상황이다.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 ‘양아치’에 여성 비하 표현인 ‘년’이 함께 쓰였다. ‘저 창부는 누구지?’로 수정할 수 있다.

<예시 23> 영화 <레미제라블> 중에서  
원문: At the end of the day she's the one who began it!  
번역문: 모든 게 저년 때문이죠!

<예시 24> 영화 <레미제라블> 중에서

원문: **She'll be nothing but trouble again and again!**

번역문: **저년**은 문제만 일으켜요

2건 모두 'she'의 번역어로 여성 비하 표현인 '년'이 사용되었다. 공장의 동료 직원들이 판틴을 지칭하는 상황이므로 두 예시 모두 '저 애'로 옮겨도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

유형별 사례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

유형별 젠더 차별 언어 사례

유형	사례	원문
불필요한 젠더 강조	1) 여자나 만나러 가지 깔리게 여잔데	I've got better things to do with my Saturday nights. I could give you their names.
	2) 여배우	Meryl Streep
	3) 날 이해해 줄 여자 별로 없어	I'm a handful.
	4) 화끈한 여자	passionate creature
	5) 여자 밝히다 신세 망쳐	Careful what you wish for.
	6) 그럴 여자 아닌 거 알아	There's more to you than that.
	7) 여자를 가만뒀겠어?	Innocence cannot flower underground. It has to be stamped out.
	8) 여자 꼬시기에	getting someone home
	9) 터프가이	a bit of rough
젠더 고정관념 및 편견 강화	10) 여자는 다 공주지	Aren't they all?
	11) 남자들이 사냥을 떠나자	braves had all gone hunting
	12) 유럽 여자 헌팅	hook up with some random European chick
	13) 여자만도 못하군	At least the girl's got balls.
	14) 돈으로 여잘 사면	to have a girl who can't refuse
특정 젠더 비하	15) 여자 하나 찾자고	to find her in the middle of all

		that?
16) 도둑년		creep
17) 걸레 년		slut
18) 계집년		my girl
19) 계집애		two-a-penny thing
20) 창녀		need no urging in the night
21) 창녀		prostitute
22) 양아치 년		hussy
23) 저년		she
24) 저년		she

‘불필요한 젠더 강조’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해당 유형의 대표 예시로 거론되는 접두사 및 접미사의 사용보다는 젠더 지칭어 ‘여자’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젠더 구분이 드러나지 않은 단어를 여성으로 특정한 사례(1, 4, 6, 8)가 대표적이다. 시청각 정보가 함께 주어지는 영상 번역의 특성상 지칭 대상의 성별을 쉽게 분간할 수 있다. 사례 4, 6에서 ‘creature’와 ‘you’를 대상의 외형적 특성에 따라 ‘여자’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는 모습에 따라 번역가가 임의로 해당 인물의 젠더 정체성을 특정한 것이다. 사례 1, 8, 9는 화자의 성별에 따라 젠더 지향성을 특정한 사례다. 발화자가 남성일 때는 여성으로, 여성일 때는 남성으로 상정하여 번역했다. 다양한 젠더 정체성과 지향성을 인정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를 번역할 때에는 시대에 발맞춘 젠더 감수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젠더 고정관념 및 편견 강화’ 사례에서는 여성을 공주(10), 사냥 대상(12), 남성보다 능력이 낮은 존재(13),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14)으로 취급하는 젠더 선입견이 번역 과정에서 추가되었다. 사냥을 남성과 연결하는 고정관념(11)은 남성에게 고정된 이미지를 덧씌우는 잘못된 편견이다. 보다 젠더 평등한 사회 구축을 위해 사라져야 하는 젠더 고정관념들로, 번역을 통해 재생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정 젠더 비하’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영화 <레미제라블>(2012)

의 자막이 10건 중 8건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불필요하게 ‘년’, ‘계집’, ‘창녀’가 사용되면서 원문에 비해 여성 비하가 강화되었다. 두 가지 요인을 추측할 수 있다. 첫째, 매춘부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사례 6건(17, 18, 20, 21, 23, 24)의 지칭 대상은 판틴이다. 판틴은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다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쫓겨난 후 양육비를 대기 위해 매춘부로 일하게 되는 인물로, 순결한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멸시당한다. 원문에서도 비하의 뉘앙스는 있으나 번역 대사에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 전통적인 젠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인물을 향한 적대감이 욕설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De Marco, 2012) 번역 과정에서 유교 사회의 젠더 가치관에 반하는 인물에 대해 언어 차별(Tang, 2022)이 강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모든 대사가 노랫말이라는 점이다. 노랫말 번역은 일반 대사 번역보다 글자수의 제한이 더 많다. 가락에 맞추어 더 많이 축약해야 하고, 서술어보다는 명사를 위주로 의미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더 직설적인 비하 표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레미제라블>의 자막에서 가장 많은 젠더 차별 언어 사례가 발견된 것은 이러한 요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총 9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발견된 <레미제라블>의 번역 자막은 네이버 시리즈온, 넷플릭스, 왓차에서 서비스되고 있다(2024년 3월 5일 기준). 젠더 차별에 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랐던 12년 전에 쓰인 젠더 관련 표현들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 대중의 젠더 감수성과 충돌할 수 있다. 가령 ‘창녀’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비하 표현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여성을 모욕하거나 비하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성 혐오 표현으로 분류된다(이수연 등, 2019, p. 40). 따라서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단어에 대해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사회적 변화에 맞춰 출판계에서 ‘젠더 개정판’을 출간하듯 영화의 자막도 불필요하게 추가된 젠더 차별 언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거론했듯이 한국 사회는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당시 여성들이 큰 공분을 느끼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차별과 공포를 이야기하고 여성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성주의 담론이 학계를 벗어나 대중의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일어난 변화다.

이를 고려하여 개봉년도에 따라 수집된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4월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를 포함하여 이전에 개봉한 영화 10편 중에서는 7편의 한글 자막에서 21건이 수집됐다. 2016년 5월 이후 개봉한 영화 10편 중에서는 3편에서 3건이 수집됐다.

분석한 영화 20편 내에서는 2016년 이후 젠더 차별 언어 사례가 이전보다 적게 나타났다. 차별어, 멸칭,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허용이 달라진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나, 원문의 변화도 요인이 될 수 있다. 애초에 영화를 제작할 때 젠더 평등을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캡틴 마블>은 마블 영화 사상 최초로 여성이 단독 주인공인 작품이다. 공동 연출과 각본을 맡은 애너 보든은 마블 스튜디오 최초 여성 감독 타이틀을 달았으며, 북미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에 개봉했다. 이렇듯 여성주의 관점에서 제작된 작품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또 <겨울왕국>과 <엘리멘탈>은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므로 원문에도 은어나 비속어가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관객수를 기준으로 작품을 선정하였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추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제작 연도를 기준으로 정량적, 통시적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한국 사회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젠더 차별 언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었고, 번역 현장에서도 젠더 평등한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영화 자막 번역에서 젠더 차별 언어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화 자막에서 젠더 차별 언어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영상 번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은어와 비속어 중에는 젠더 차별적 뜻이 내포된 표현이 적지 않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체어를 찾지 못해 번역어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수용의 측면이다. 영화 자막은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에게 노출되고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언제

든,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방송물의 자막은 시청자에게 규범 언어로 인식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상 번역에서 젠더 차별 언어 연구는 그 필요성과 시의성에 비하여 외면 받고 있는 연구 분야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화 자막 번역 과정에서 젠더 차별 언어가 추가될 수 있다는 가설 하에 대중 영화의 영한 자막에서 젠더 차별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다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관객수를 기준으로 외화 20편을 선별해 우리말 자막의 젠더 차별 언어 사례를 수집한 결과 10편의 자막에서 총 24건이 나타났다. 젠더 차별 언어 유형으로는 ‘불필요한 젠더 강조’ 9건, ‘젠더 고정관념 및 편견 강화’ 5건, ‘특정 젠더 비하’ 10건이 나타났다. 성적 대상화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외설적 표현을 지양하는 자막 번역 규범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유형별로 두드러지는 특징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젠더 강조’에서는 원문에서 드러나지 않은 젠더 정체성이나 지향성에 대해 번역가가 임의로 여성이나 남성으로 특정하는 사례가 주로 나타났다. 젠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막 번역가의 젠더 인식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젠더 고정관념 및 편견 강화’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잘못된 편견이 번역 과정에서 추가되어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정 젠더 비하’ 유형에서는 영화 <레미제라블>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젠더 고정관념에 반하는 인물에 대해 비하 표현이 강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자막은 현재 여러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사회의 언어는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과 인식에 따라 변화한다. 젠더 차별 언어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허용도 달라진다. 출판계에서 ‘젠더 개정판’을 출간하듯 영화 자막에서도 불필요하게 추가된 젠더 차별 언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한 영화 내에서 2016년 이후로 젠더 차별 언어 사례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인을 추측할 수 있다. 1) 젠더 차별 언어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 2) 젠더 의식 변화에 따른 원작의 변화, 3)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장르적 특성이다. 향후 정량적, 통시적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양적, 질적 측면에서 연구를 발전시켜 계속해서 데이터

를 구축해 나간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영화 자막의 번역 과정에서 젠더 차별 언어가 추가된 사례와 그 양상을 분석하고, 젠더 선입견이 자막 번역을 통해 재생산되는 현상을 살펴본 소수의 연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자막 번역에서의 젠더 문제에 관해 더 많은 논의가 촉발되기를 바라며, 보다 젠더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영상 번역 관련 주체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권오숙. (2012). 성차에 따른 성담론 번역 양상 비교 —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번역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8, 55-80.
- 김가희. (2015). 문학번역 텍스트의 전용: 하이재킹(hijacking) — 토니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6(4), 151-170.
- 김윤선. (2012). 번역 텍스트의 젠더화와 여성의 모더니티 — 「신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8, 143-179.
- 김세미. (2023). 영화 영한 자막 번역에 나타난 쿼어 인식에 대한 변화. 영상문화콘텐츠연구, 30, 275-300.
- 김세현. (2017). 영상번역에 나타난 젠더: 디즈니 영화를 중심으로. 동화와번역, 33, 61-82.
- 김세현. (2018).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에 대한 수용자 인식 연구. 번역학연구, 19(2), 39-69.
- 김진좌. (2003). 번역과 사회언어학적 개념으로서의 젠더. 국제회의 통역과번역, 5(2), 79-99.
- 김옥동. (2012). 속담의 성차별과 젠더 번역. 통번역학연구, 16(4), 109-127.
- 김하은. (2021. 7. 2.). 그 번역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서울대저널.  
<http://www.snujn.com/news/52348>
- 마승혜. (2015). 한국 젠더 번역 사례 연구 — 『The Awakening』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3), 23-52.

- 마승혜. (2020). 페미니즘 시각에서 문학번역 다시 하기 — 『작은 아씨들』 번역을 중심으로 현상 및 요인 분석. *통역과 번역*, 22(1), 53-78.
- 마승혜와 김순영. (2022). 번역문학에서의 젠더 감수성 및 교육적 함의 — 『Anne of Green Gables』 한국어 번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4(1), 81-106.
- 박선주. (2012). (부)적절한 만남 번역의 젠더, 젠더의 번역. *안과밖*, 32(1), 289-317.
- 박소연. (2015). 문화번역 및 번역된 젠더에서 바라 본 식민 여성: 1938년 작 조선영화 <어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5, 283-321.
- 박소영. (2018). 『레라미 프로젝트(The Laramie Project)』의 성소수자 지칭어 번역. *통역과 번역*, 20(1), 19-42.
- 박소영과 임승태. (2020). 시스템 관점에서 본 연극 <비평가>의 페미니스트 번역 실천. *번역학연구*, 21(1), 87-113.
- 서동민. (2011. 1. 10.). DRM. 용어로 보는 IT. IT 동아. Naver 지식백과. 2024. 1. 9. 검색, <https://bit.ly/4cagUFn>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 9. 1.). (석간) 아직도 법령에 이런 단어가? 학부형, 양자, 첩...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보도자료]. <https://bit.ly/3uhXcGE>
- 성승은. (2018). 번역을 통한 사회 참여 — 청소년 성소수자 담론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4), 287-302.
- 신나안. (2018). 퀴어영화포스터 번역에서 퀴어코드의 이성애화. *통역과 번역*, 20(3), 21-48.
-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과 윤정주. (2007).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12. 28.). 양성평등한 방송문화를 위해 방송심의 규정 개정 [보도자료]. <https://bit.ly/3IzkDPt>
- 영화진흥위원회. (2016). 영화 온라인 시장 구조 분석. <http://bit.ly/3w0Zj27>
- 영화진흥위원회. (2023). 202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 <https://bit.ly/42mNC1I>
- 우경조와 임향옥. (2021). 젠더번역 관점에서 『채식주의자』 번역 분석: 여성

- 인물 재현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2), 439-454.
- 유미향, 박정윤과 이영훈. (2012).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번역: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 번역본 비교. 번역학연구, 13(5), 143-173.
- 이상빈. (2012). 문화번역과 젠더번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6(3), 23-42.
- 이상빈. (2016). 자막번역에 의한 여성 재현의 변이: 영화 <섹스 앤 더 시티 2>의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0(2), 59-80.
- 이상빈과 선영화. (2017). 『버자이너 모놀로그』를 통해 살펴본 국내 페미니즘 번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통번역학연구, 21(3), 109-135.
- 이상빈과 이선우. (2018). 인물형상화와 페미니즘 번역. 번역학연구, 19(1), 147-176.
- 이수연, 윤지소, 장혜경과 김수아. (2019).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미영. (2012). 번역을 통한 근대 지성의 유통과 젠더 담론 — 「여원」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8, 205-237.
- 전국언론노동조합. (2023. 4. 11.). 평등한 보도를 위한 젠더보도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https://bit.ly/3uAvi9a>
- 정선혜와 박윤희. (2017). 『위대한 개츠비』 영한 번역과 페미니스트 번역 전략 연구. 영어권문화연구, 10(1), 145-172.
- 정선혜와 박윤희. (2020).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본 『주홍글자』 영한번역 양상. 철학·사상·문화, 34, 661-682.
- 조성원. (2004). 셰익스피어 영상번역과 젠더. 비교문학, 32, 31-50.
- 조태린. (2006)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https://bit.ly/3IBWojw>
- 지윤주. (2021a). 신경망 기계번역 내 젠더 문제 고찰 연구 — 네이버 파파고와 구글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3(1), 269-294.
- 지윤주. (2021b). 웹 코퍼스를 활용한 신경망 기계번역의 안티-페미니즘 (Anti-Feminism) 현상 연구. 번역학연구, 22(5), 299-326.
- 지윤주와 이상빈. (2020). 퀴어소설 번역에서의 섹슈얼리티 재현: 번역서 『브

- 로크백 마운틴』 두 편을 비교하며. *T&I REVIEW*, 10(2), 135-151.
- 최윤아. (2021. 9. 15.). “책 생명 늘려야죠”... 문학 속 ‘성차별’ 패치 떼는 출판계. 한겨레. <https://bit.ly/4bej726>
- 태혜숙. (2013). 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젠더번역’에 대한 탐색. *젠더와문학*, 6(1), 83-107.
- 허진무. (2017. 1. 31.). 페미니즘 비판하던 '이퀄리즘'은 누리꾼이 만들어낸 '창작품'. *경향신문*. <https://bit.ly/3SIemH0>
- 홍승연. (2019). 『래디컬 페미니즘』 번역과 출판과정을 통해 살펴본 페미니스트 번역가의 행동가적 실천. *통역과 번역*, 21(3), 239-268.
- Baer, B. J., & Kaindl, K. (2018). *Queering translation, translating the queer: Theory, practice, activism*. Routledge.
- Baumgarten, N. (2005). On the women’s service?: Gender-conscious language in dubbed James Bond movies. In J. Santaemilia (Ed.), *Gender, sex and translation: The manipulation of identities* (pp. 53-69). Routledge.
- Castro, O., & Ergun, E. (Eds.). (2017). *Feminist translation studies: Local and transnational perspectives*. Routledge.
- Chamberlain, L. (1988). Gender and the metaphors of translation. *Signs*, 13(3), 454-472. <http://www.jstor.org/stable/3174168>
- Chiaro, D. (2007). Not in front of the children?: An analysis of sex on screen in Italy. *Linguistica Antverpiensia*, 6(1), 255-276.
- De Marco, M. (2006). Audiovisual transla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JoSTrans: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6(1), 167-184.
- De Marco, M. (2012). *Audiovisual translation through a gender lens*. Rodopi.
- Epstein, B. J., & Gillett, R. (Eds.). (2017). *Queer in translation*. Routledge.
- Federici, E., & Santaemilia, J. (Eds.). (2022). *New perspectives on gender and translation: New voices for transnational dialogues*. Routledge.
- Feral, A. (2011a) Sexuality and femininity in translated chick texts. In L. von Flotow (Ed.), *Translating women* (pp. 183-201). University of Ottawa Press.
- Feral, A. (2011b). Gender in audiovisual translation: Naturalizing feminine voices

- in the French Sex and the City.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8(4), 391-407.
- Hartman, K. (1999). Ideology, identific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feminine: Le Journal de Marie Bashkirtseff. *The Translator*, 5(1), 61-82.
- Muñiz, I. (2018). Womanhandling Ibsen's A Doll's House: Feminist translation strategies in a Spanish translation from 1917. *Meta*, 63(2), 422-443.
- Orozco, J. A. C. (2013). Gender and translation: Spanish translation of Virginia Woolf's Orlando, by Jorge Luis Borges. *Mutatis Mutandis*, 6(2), 444-454.
- Ranzato, I. (2012). Gayspeak and gay subjects in audiovisual translation: Strategies in Italian dubbing. *Meta*, 57(2), 369-384.  
<https://doi.org/10.7202/1013951ar>
- Reimóndez, M. (2017). We need to talk... to each other: On polyphony, postcolonial feminism and translation. In O. Castro & E. Ergun (Eds.), *Feminist translation studies: Local and transnational perspectives* (pp. 42-55). Routledge.
- Rose, E. (2021). *Translating trans identity: (Re)writing undecidable texts and bodies*. Routledge.
- Santaemilia, J. (Ed.). (2005). *Gender, sex and translation: The manipulation of identities*. St Jerome Publishing.
- Santaemilia, J. (2013). Gender and translation: A new European tradition? In E. Federici & V. Leonardi (Eds.), *Bridging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translation and gender studies* (pp. 4-14).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Simon, S. (1996). *Gender in translation: Cultural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transmission*. Routledge.
- Tang, J. (2022). Evaluative language and gender stereotyping: A case study of the perpetuation of sexism in literary translation. *Perspectives*, 30(6), 1027-1042.
- Tolliver, J. (2002). Rosalía between two shores: Gender, rewriting, and translation. *Hispania*, 85(1), 33-43.

- von Flotow, L. (1991). Feminist translation: Contexts, practices and theories. *TTR*, 4(2), 69-84.
- von Flotow, L. (1997). *Translation and gender: Translating in the 'era of feminism'*. Routledge.
- von Flotow, L. (2007). Gender and translation. In P. Kuhiwczak & K. Littau (Eds.), *A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 (pp. 91-105). Multilingual Matters.
- von Flotow, L. (2019). Translation. In R. T. Goodman (Ed.), *The Bloomsbury handbook of 21st-century feminist theory* (pp. 229-243). Bloomsbury.
- von Flotow, L., & Josephy-Hernandez, D. (2019). Gender in audiovisual translation studies: Advocating for gender awareness. In L. Pérez-González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audiovisual translation* (pp. 296-311). Routledge.
- von Flotow, L., & Kamal, H. (Eds.). (2020).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feminism and gender*. Routledge.
- Williams, R. (2022). Reading gender in classics of children's literature: The anthropomorphic representation of gender in Carlo Collodi's *Le Avventure di Pinocchio*. *Perspectives*, 30(6), 1012-1026.
- Zhu, L., Ang, L. H., & Mansor, N. S. (2023).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translation(1995-2022): A systemic literature review. *World Journal of English Language*, 13(6), 420-430.

## **Gender-biased language in English-Korean subtitles of high-grossing films**

**Jaemin Kim**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ce of gender-biased language in English-Korean subtitles of popular movies released in Korean cinema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stances that have been introduced or accentuated by translators. A corpus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on 20 English-Korean subtitles of the highest-grossing films of all time in South Korea. The analysis using AntConc showed 24 instances of gender-biased language across 10 movies, including 9 instances of unnecessary gender-specific terms, 5 instances of reinforced gender stereotypes, and 10 examples of gender-specific pejorative terms. The findings reveal that translated subtitles include gender-biased terms not found in the source text, and that most of them are derogatory language against woman.

**Keywords:** Gender translation; gender-biased language; subtitles; audiovisual translation

**키워드:** 젠더 번역, 차별 언어, 자막 번역, 영상 번역

김재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ubersetzer@naver.com

논문 투고일: 2024년 2월 13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3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3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4년 3월 15일